

LCC 넘어 '빅2' 항공사로 애경, 160대 거대 익룡 비상할까

〈항공기〉

〈翼龍〉

경영능력 제주항공으로 이미 검증 인수시 국제선 45% 국내선 48% 점유 "대기업들 막판에 뛰어 들 가능성 있어"

국내 최대 규모의 항공사 아시아나항공의 본입찰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유일하게 항공운송산업 경험이 있는 애경그룹이 이번 인수전을 통해 점유율 1위 항공사로 도약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재계에 따르면, 금호산업과 채권단은 오는 7일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위한 본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본입찰에는 애경그룹-스톤브릿지캐피탈 컨소시엄(애경그룹 컨소시엄),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 컨소시엄(HDC 컨소시엄), KCGI-뱅크스트리트프라이빗에쿼티 컨소시엄(KCGI 컨소시엄) 등이 참석한다.

애경그룹 컨소시엄과 HDC 컨소시엄은 적격 인수후보(쇼트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면서 사실상 2파전으로 좁혀지는 양상이다. KCGI 컨소시엄은 아직 전략적투자자(SI)를 찾지 못한 상태



다.

특히 애경그룹은 제주항공을 저비용 항공사(LCC) 1위로 키워낸 노하우를 가진 만큼, 이번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통해 점유율 1위 항공사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애경그룹은 시장의 치열한 경쟁과 수많은 견제를 뚫고 2006년 취항한 제주항공을 13년 만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LCC로 성장시키며 항공산업 경영능력을 이미 검증 받았다.

애경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되면 자회사 등을 포함해 160여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게 되며,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상반기 각 사의 여객통계를 기초로 각 사의 점유율을 합하면 국제선 45%, 국내선 48%로 국내 최대 항공그룹이 된다.

현재 국내 항공여객점유율은 한진그룹(대한항공, 진에어)이 1위, 금호아시아나그룹(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2위, 애경그룹(제주항공)이 3위이

며 이번 인수전에서 애경그룹이 인수에 성공할 경우에 1위 그룹 순위가 바뀔 수 있다.

금호산업은 본입찰 후 우선인수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주식매매계약체결 등을 거쳐 가능하면 연내 매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매각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 6868만863주(지분율 31.0%-구주)와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하는 보통주(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경영권을 잠재투자자에게 이전한다.

매각가는 신주발행액 8000억원을 포함해 구주인수, 경영권 프리미엄 등까지 감안하면 1조 5000억~2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인수 후 추가 자금이 투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채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9조 5889억원에 달한다.

자금력 면에서는 HDC 컨소시엄이 앞서지만, 그룹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애경그룹의 경영능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항공 취항 당시에도 과당경쟁과

서비스 저하, 자금력에 대한 의구심이 뒤따랐고 각종 약제가 겹쳤지만, 애경그룹은 제주항공을 LCC 1위로 키워냈다.

애경그룹 측은 "항공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금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금만 있다고 되는 사업이 절대 아니다"라며 "제주항공을 운영해온 2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시아나항공을 운영하면, 더욱 경쟁력있는 항공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유통사업과의 시너지를 더한다면 제2의 도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되어온 자금력 부족도 해소했다. 지난 10월 21일 애경그룹은 운용자산이 1조원을 넘는 스톤브릿지캐피탈과 손잡으면서 자금력 문제를 불식시켰다.

재계 한 관계자는 "2파전으로 좁혀졌지만, KCGI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끌고 들어오느냐도 이번 인수전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아울러 초기 인수 후보로 꼽혔던 SK, GS 등 유력 대기업이 막판에 뛰어 들 가능성도 남겨둬야 한다"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다이슨이 미용실을?... 모터혁신 헤어기기에

"3D 프린터로 국내 제조업에 혁신을"

르포 뷰티랩 팝업스토어

다이슨 제품 우수성 알리기 나서 열 대신 바람으로 모발손상 최소화

다이슨은 자타공인 엔지니어 회사다. 설립자를 비롯해 직원 대부분이 엔지니어로 구성됐으며, 더 효율적인 모터를 개발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런 다이슨이 갑자기 미용실 같은 공간을 만들었다. 서울 한남동 '사운드스 한남'에 자리한 '다이슨 팝업 데모 스토어 뷰티랩'이다. 본사 엔지니어와 헤어 전문가들을 초빙해 10개월 동안 모발 건강 진단과 스타일링 팁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이슨이 뷰티 사업을 새 먹거리로 삼은 것은 아니다. 다이슨은 네이버 사전 예약을 받아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익을 위해 팝업스토어를 기획하지는 않았다는 얘기가.

"다이슨은 수준 높은 모터 기술력으로 바람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고민해왔다. 슈퍼소닉 헤어드라이어와 에어랩 스타일러도 바로 그 중 하나다. 뷰티랩은 다이슨의 제품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다이슨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뷰티랩의 첫번째 서비스는 헤어 카운셀링 프로그램인 '헤어 맵핑 앰블리시스'다. 현미경으로 모발을 찍어 표면피층과 모피질, 모수 상태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주는 내용이다.

다이슨은 정확한 측정을 위해 스캐닝 전자 현미경을 따로 공수하고 현지 엔지니어도 모셔왔다. '다이슨 모발 진단서' 형태로 고객에 무료 제공한다. 단,



다이슨은 뷰티랩에 전자 현미경을 공수하고 본사 엔지니어를 초청해 한 달간 헤어 맵핑 앰블리시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이슨코리아



다이슨은 스타일링 전문가를 통해 다이슨 제품을 활용한 스타일링 방법도 전수해준다.

연건상 11월까지만 운영한다.

다음으로는 전문 헤어스타일러의 헤어 스타일링 세션이 기다린다. 슈퍼소닉과 에어랩 스타일러를 이용해 모발 손상 없이 더 깔끔하게 스타일링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세션 사이에는 다이슨 헤어케어 제품이 왜 모발 손상을 최소화하는지 설명해주는 공간도 마련됐다. 강한 열 대신 바람을 최대한 활용해 피해를 최대한 줄이면서도 스타일링 능력을 극대화했다는 설명이다.

뷰티랩의 특별함은 또 있다. 바로 각

인 서비스다. 전세계에서도 뉴욕 등 일부 매장에서만 제공하는 서비스로, 슈퍼소닉이나 에어랩을 구매한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영어만 지원되며, 3글자까지 새길 수 있다.

뷰티랩은 그 밖에도 대표 제품인 선풍기와 공기청정기, 조명 등도 함께 전시하고 판매한다. 지난 8월 처음 공개한 에어랩 스타일러가 국내 최초로 공개되며, 개인용 공기청정기 퓨어쿨미 화이트/푸시아 컬러 모델을 200대 한정 독점으로 들여왔다.

다이슨 헬스 및 뷰티 카테고리 부사장인 폴 도슨은 "뷰티랩에서 제공하는 헤어 카운셀링 프로그램은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스캐닝 기술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이슨 데모 스토어 뷰티랩은 다이슨 헤어 과학의 전문성과 헤어 관리 기술의 집약체로, 다양한 모발 종류의 미묘한 차이까지 이해하고 다이슨의 모발 관리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폼랩 기자간담회

내년 LFS 방식인 '폼3'·'폼3L' 공급

3D프린터의 글로벌 선두기업 폼랩이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지사 설립을 공식 발표했다.

폼랩은 3D 프린팅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제조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미국 보스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세계 7개 국가에 지사를 운영 중이다. 5만대 이상 3D 프린터를 출하해 SLA 부문 전 세계 1위 업체이며, 가치가 10억달러를 넘는 기업으로 평가받는다.

이날 행사에는 아시아태평양 및 일본 지역 총괄 사장이 데이비드 탄과 함께 한국지사 김진욱 지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폼랩은 한국이 GDP로는 세계 10위권이지만 제조업 분야에서는 세계 5위 강국이라고 평가하고, 3D 프린터가 국내 제조업에 혁신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서 뉴발란스를 비롯한 업체들이



폼랩코리아 김진욱 지사장. /폼랩

폼랩 3D 프린터로 제조 체계를 더욱 간소화하는데 성공했다고 예를 들며, 국내에도 3D 프린터가 빠르게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폼랩이 내세운 무기는 'LFS 3D 프린터'다. 액체 수지를 완벽하게 전환해주는 광경화성수지조형(SLA) 방식을 업그레이드한 기술이다. 플렉서블 탱크를 장착해 적은 힘으로도 품질과 현실감을 높여주며, 선형 조명으로 안정적인 제품 완성도를 유지할 수 있다.

폼랩은 내년 국내에 LFS 방식인 '폼3'와 '폼3L'을 주력으로 공급하면서 한국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재용 기자

메일도 카카오톡으로... 베타서비스 시작

카카오톡이 카카오톡 내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카카오메일'을 베타서비스로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카카오계정 기반의 새로운 메일 서비스인 카카오메일은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카카오톡 더보기탭의 '메일' 버튼을 통해 진입, 신규 메일 주소를 생성해 이용 가능하다.

카카오메일은 스마트 분류함을 통해 청구서, 쇼핑, 소셜, 프로모션 등의 메

일을 자동으로 분류해주고, 불필요한 메일은 7일이 지나면 휴지통으로 이동되는 등 효율적인 메일함 관리를 지원한다. 또한 메일을 자주 주고받는 상대를 관심 친구로 설정해 모아보기가 가능하며, 관심 친구로부터 메일 수신 시 카카오톡 채널 '조르디'를 통해 알림을 받아볼 수 있다.

카카오메일 베타서비스는 iOS와 안드로이드 카카오톡 v.8.6.0 이상으로 업데이트 후 이용 가능하다. /구서윤 기자 yuni2514@